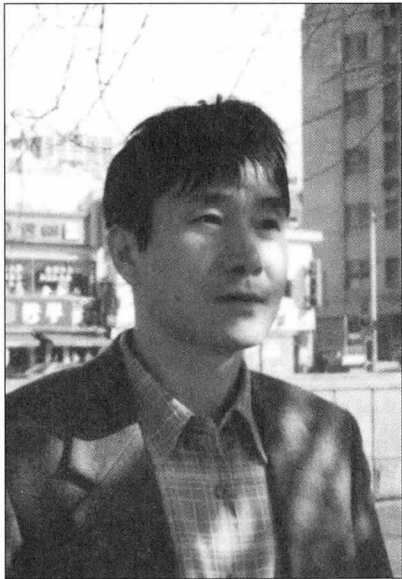


책의 운명

정보혁명과 '뿌리깊은 진보'

김영민

한일신학대 교수 · 철학



김영민씨.

금세기의 전반을 넘기면서 각종의 종언주의가 난무했던 것을 기억해보자. 그것은 한편 밀레니움이 바뀐다는 시의성에 편승한 것이었으나, 그 논의의 적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우리 시대의 정신문화적 풍속도로서 나름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리라. 이 담론군의 성격은 대체로 자기모멸적이고 따라서 진보·보수 식의 경직된 이분법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서양의 근대는 '진보의 한살이'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유기적 경험이다. 이 경험에 종언을 고하며 작금 비(非)·반(反)·타(他)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대항담론들, 그리고 그 조망은 옥심만큼 명료하지 못하다. 그것은 한살이를 마감하는 부모가 자식의 다음살이에 대한 예측과 바람을 내비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종언의 담론 속에 새로운 시작

정보문화의 혁명적 발전과 파급도 종언주의의 담론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난다. 또 거기에는 이름 만큼이나 깨끗한 지평과 풍성한 가능성의 냄새가 배어 있는 듯하다. 이 가능성은 반도체칩(chip)과 전자카드(card), 그리고 케이블(cable)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사이버(cyber)세대⁶⁾에 의해서 그 일부가 입증되고 있다.

이미 정보광(informania), 사이버예술(cyberarts), 그리고 전자시(telepoetry)라

는 개념까지 낫설지 않게 된 마당이다. 당연히 각국은 정보문화를 매개하는 신매체의 개발에 열심이고, 지식계의 일각에서는 (신)매체담론으로 응성거리고 있다.

현대사회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이고, 이 체제는 고도의 정보처리기구로서 자기변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식의 조작에 드는 비용을 낮춰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만들 것"⁷⁾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오늘의 새 매체들과 아직도 방어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 뿐이다"⁸⁾고 한 것은 1992년인데, 이제 그간의 변화와 발전은 이 진단마저 고쳐놓아야 할 지경이다. 정보혁명이 하나의 '시작'이라면, 그것은 과연 어떤 시작일까?

정보체제의 효율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매체의 혁명적 발전은 지난 밀레니움의 기록과 전달을 담당했던 종이책의 운명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른바 '책의 종언'이 종언주의의 한 갈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책의 종언'은 철학적 담론으로도 유효하다.

독서행위 등 변화의 탐색

테일러는 책의 종언이 품은 종교신학적 함의에 주목하는데, 이것은 서양문화가 중근세의 구별과 큰 상관없이 그 본질에서 '책의 문화'이자 '신의 문화'라는 사실에서 연원한다. 그는 책의 종언이 신매체의 시장점유와 관련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낱말과 이미지의 무한정한 자기복제 능력에서 그 쟁점을 찾고 있다.⁹⁾

모든 창의 출발이 복제 이상의 상상이라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그의 진단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심화될 여지를 남긴다. 테리다에 의하면 책의 종언은 서양의 로고스, 음성중심주의의 시대 전체가 종언을 고하는 결별사이며, 그의 소위 '텍스트' 개념이 닫혀진 의미순환 공간으로서의 책을 넘어서 자기확인의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다.¹⁰⁾

현장으로 내려서면 문제는 일견 단순화한다. 우선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서 거듭 지적되며, 일본과 프랑스 등의 독서풍토와 비교되면서 우리의 지력(智力)을 가늠하고, '책을 읽읍시다'라는 애국계몽

기적 캠페인이 연중무휴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책의 구매력이나 독서량을 논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을 비켜간다. 아마 이것은 작금의 '인문학 위기론'의 성격과 닮았을 것이다. 인문학의 존폐 위기를 심각히 거론하는 터에 인문학 잡지는 유례없는 성시를 이루고 있고, 그 논의는 우리 지식사회의 중요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이 이중성 말이다.

신매체에 밀려나고 있다는 종이책의 구매량이나 독서량에 대한 조사에 앞서서 탐색해야 할 대목은 변화된 독서행위의 성격과 그 사회적 함의, 독서의 주제,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취득되고 활용되는 지식의 종류와 성격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정보혁명적 변화는 이 탐색의 결과에 개입하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반성장치 없는 정보화

정보사회와 관련된 예술현장의 추세를 따지는 마당에서는, '감상지에서 소비자'라는 속어를 자주 듣게 된다.¹¹⁾ 심미와 해석의 대상조차도 마치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인양 대하는 세대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 인문학 서적, 혹은 시집이란 대체 무엇인가? 자기성찰력, 즉 역사 의식과 인간됨에 대한 반성장치가 없는 정보화란 단위주의(unit-ism)와 등가성의 논리에 근거한 상업주의의 침범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에 저자와 지식인들은 성찰과 비판보다 소개와 선전에 능하게 되고, 독자와 교양대중들은 성숙과 해방보다는 안돈(安頓)과 처세에 재빠르게 된다. 여기에 전자매체의 부담없고 신속한 정보공급능력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사이로 관념의 미로를 배회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인 저자, 그리고 해석과 실천의 고민을 접어둔 채 이미지와 그 풍경을 유람하는 보수적 진보주의자인 독자대중 사이의 틈은 커지고, 그 틈에 서식하는 저급의 대중화저자(popularizer)가 양산되는 것이다.

근대적 진보의 정점을 휘감고 있는 자기모순의 안개를 뚫고, 새 시대의 문화적 전위로서 부상하고 있는(듯 보이는) 이 정보사

정보공간의 가장 큰 맹점은

'반성찰적'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정보 속을

'서핑' 해다니는 공간적

이동성으로는 성찰의 조건인

시간성의 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의 특징인 공시성과

잠입현상은 바로 비판적·성찰적

활동 주체의 왜소화를 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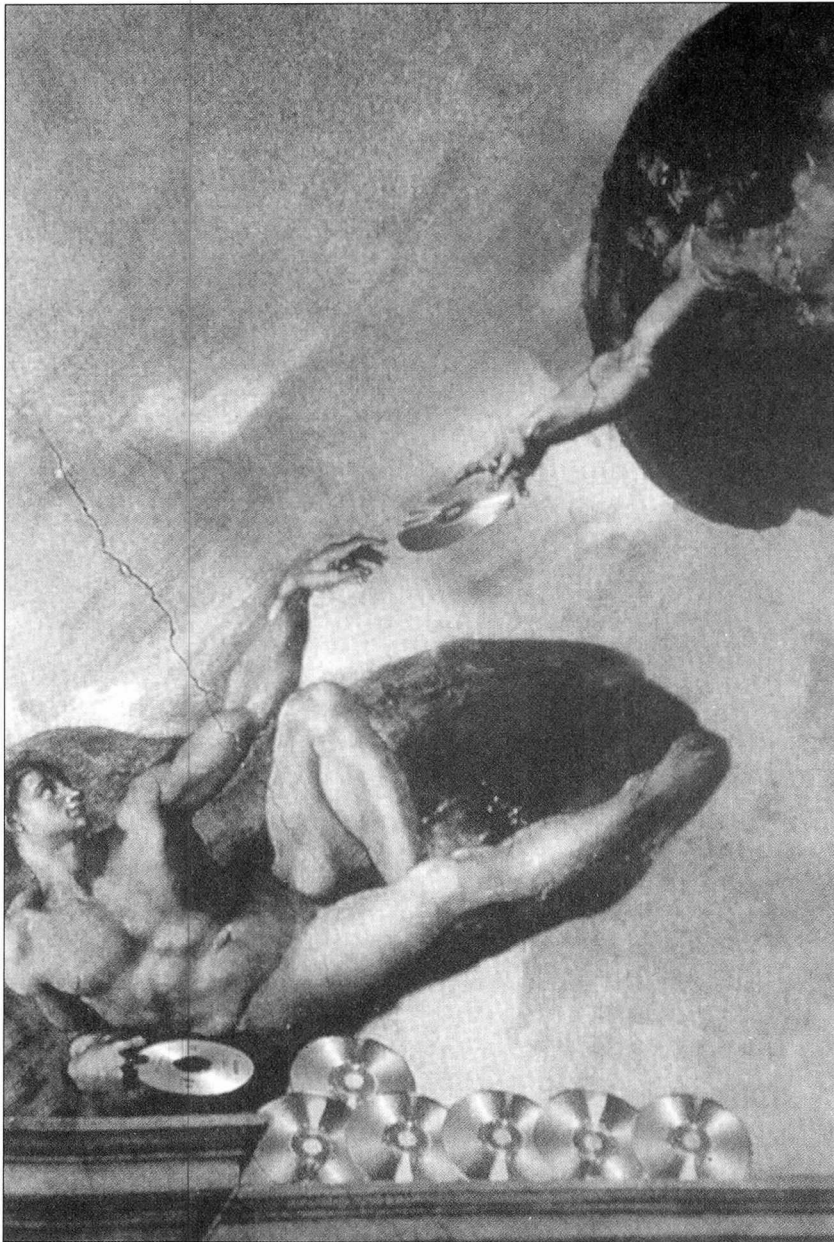
것에 다름아니다.

회의 네트워크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 패스트푸드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또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정보'는 우리시대의 화두가 된 것이다. 이어령 교수는 《아빠 정보가 뭐야?: 정보시대에 생각하기》(웅진출판, 1977)라는 아동도서까지 썼었다던가. 지식에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을 부유하고 있다. 큰 바다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이다.

인문주의자의 편벽이라고 되받아칠 사람도 있겠지만, 종이책이 연출하는 환경에 비해 신매체, 혹은 정보공간의 가장 큰 맹점은 '반성찰적'이라는 것이다. 인문적 성숙의 본질이 잘 보여주듯이, 수많은 정보 속을 '서핑'해 다니는 공간적 이동성으로는 성찰의 조건인 시간성(역사성)의 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가상현실의 특징으로 공시성과 잠입현상(immersion)¹²⁾을 들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비판적 성찰적 활동주체의 왜소화를 뜻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나는 정보를 컨텍스트의 암(癩)이라고 극언하기도 했지만,¹³⁾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정보가 폐품이라는 사실¹⁴⁾은 사실 우리 정신생활의 기본에 속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대화·즐거움·체험·지혜가 없는 정보공간은 필경 기술맹신주의의 봉토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쯤해서 인문주의자들은 종이책과 그 오래된 문화에 대한 옹호론을 떠올리리라. '책의 의의와 그 존폐를 묻는 물음에 답하기



정보혁명과 책의 운명을 겹쳐보면 우선 '기술적 보수주의'라는 숙어가 떠오른다.

위해서는 책과 만나 함께 살아온 인류의 긴 족적을 오랫동안 굽어본 역사가 그 무거운 입을 열 수밖에¹⁾”라고 하든가, 종이책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은 “마치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섭취하는 육체적 양식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사실과도 상통한다²⁾”고 하든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오직 (종이)책만이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다³⁾”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매체의 개발에 따른 정보문화의 확산과

관련해서 책의 역사와 운명을 따지는 물음은 이제 진부하다. 사뭇 논의의 패턴이 굳어져간다. 혹자들은 미소를 띠며 종이책의 친근한 중량감과 질감을 얘기한다. 여백의 미학이나 서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도 한다. ⁴⁾ 때가 묻어가면서 정이 드는 종이책의 감상을 설득하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 퍼볼 수 있는 가독성, 그리고 검색이나 편집 기능으로 다할 수 없는 독서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최대의 장점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정보사회에 대한 인문학자의 비판은 한편

보수적으로 비친다. 그러나 여기서 실눈을 뜨고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이 '보수'가 아니라 '기본'을 지켜나가자는 데 있다는 것이다. 기본도 기본 나름이겠지만, 역사가 확인해준 기본을 그 역사성의 흐름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찰적 진보 뿌리 있는 진보가 아니고 무엇이라?

정보공간 속의 식민성

정보혁명과 책의 운명을 겹쳐보면 우선 '기술적 보수주의'라는 숙어가 떠오른다. 폐쇄적 전문성이 주는 보수주의의 선물. 그것은 영혼을 판 파우스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위험한 선물의 역사를 완결짓는다. 또 그것은 일찍이 김현이 말한 바 '새것 컴플렉스'⁵⁾가 빛을 이중성의 질곡이기도 하다.

성찰력의 왜소화를 통해 번성하는 정보공간 속의 식민성의 테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주제는 탈근대적 세계화론의 그늘 아래 더욱 굵아가는 내적 봉건성의 문제와 비슷한 구조를 지닌다. “판만 벌였다 하면 미국 이야기요, 21세기와 첨단 이야기다. 반면, 우리 도서관과 관련기관의 현실은 원시 그대로이다⁶⁾”는 한탄은 그 대표적인 고민의 표정이다.

역사의식의 행로는 실종되고, 정신의 냉전 체제 속에 사상의 황폐는 방치되고, 탈근대의 구호 속에 전근대의 현실이 은폐되고, 정보화의 체제 속에서 우리 역사와 사회에 책임있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간이 자본의 지배력을 물리치고 자유로운 결사체를 쉽게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상업적 쓰레기가 가득차고 새로운 권력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⁷⁾”는 지적도 있다.

종이책과의 대면을 통해서 상징되던 성찰력이 빈곤해진 터에, 접근가능성, 유통성, 그리고 환전성(換錢性)이 극도로 높아진 정보공간에 상업주의와 신종의 특권주의가 번식하리라는 우려에도 유의해야 한다.

종이책과 정보화 사이에 선 미래

어차피 낙관적 기술맹신주의도, 소심한 인문주의도 우리의 미래를 전담하지는 못한다. 인쇄와 전자와의 관계, 종이책과 신매체의 관

계, 그리고 활자와 이미지의 관계를 '전환'이나 '대체'가 아니라 주가와 보완의 관계로 보는 매체의 종말을 외치는 예언자들의 음성이 설익게 들리듯이, 정보화·전자화를 외면하는 소수 인문주의자들의 집착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입지는 못되기 때문이다.

나로 말하자면, 종이책과의 우정을 대변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지만, 이 싸움에 이기려는 마음은 없다. 오히려 내 예감은 워낙 지는 싸움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다. 불길하지만 불안해 하지 않는 것은 정작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지는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인문정신이란 늘 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기기 때문이다. ❖

- 1) 이주향, “사이버로의 길 발전인가? 몰락인가?” 《철학과 현실》 1997년 봄, 16쪽
- 2) 복거일 “포스트모던 문화의 글쓰기와 저자” 《출판저널》 1992년 7월20일자, 14쪽
- 3) 이종한 “삶의 양식의 변화와 독서양상” 같은 책, 18쪽
- 4) Mark C. Taylor, 《Erring》(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77쪽.
- 5) 김상환의 해설, “모더니즘의 책과 저자” 《해체론 시대의 철학》(문학과지성사, 1996)
- 6) 김혜련, “정보화사회와 예술” 《철학과현실》, 1996년 가을, 76쪽.
- 7) 김혜련, 앞의 글, 85쪽.
- 8) 김영민, “컨텍스트 → 암 → 텍스트 → 암 → 메시지 → 암 → 정보” 《컨텍스트로, 패턴으로》(문학과지성사, 1996), 32쪽 이하
- 9) 김정근·이용재, “참을 수 없는 미래 도서관 답론의 가벼움” 《도서관논집》 24집 217쪽
- 10) 김영민 “책은 죽는가” 《세계의 문학》, 1996년 여름, 59쪽
- 11) 김성곤, “뉴미디어시대의 책과 문화사적 의미” 《출판저널》 1992년 7월20일자, 10쪽
- 12) 움베르토 에코, “최후의 날에도 가장 든든한 벗”(국제출판협회 총회 기조연설문) 《출판저널》 1996년 5월20일자, 21쪽
- 13) 김영민 “내 정신이 꿈꾸는 눈부신 풍경” 《출판저널》 1995년 9월5일자, 20쪽
- 14) 김현, 《전체에 대한 통찰》(나남, 1992) 109쪽
- 15) 김상환의 해설 “모더니즘의 책과 저자” 《해체론 시대의 철학》(문학과지성사, 1996)
- 16) 김정근·이용재, 앞의 글, 235쪽
- 17) 김혜련, 앞의 글, 348-49쪽